

<6강 인트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사무엘하 강의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는데요.

아들 압살롬의 배반과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강으로 사무엘하 19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왕으로 복귀하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나누게 됩니다.

혹시 해당 범위의 성경을 읽지 않으셨다면 잠시 멈추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영화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성 안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왕을 비롯하여 장군과 병사들이 오와열을 맞추고 의기양양하고 씩씩하게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떨까요? 제 각기 환호성을 지르면서 군사들을 맞아 줍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죽이고 들어온 군대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 보았던 영화의 장면과는 많이 다릅니다. 대대적인 입성식 또는 환영식이 없고 오히려 패잔병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승리에도 불구하고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마음이 아파 울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 목숨걸고 싸웠던 부하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행동은 옳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기뻐하며 축제를 벌어야 했지만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슬퍼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하며 도망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요압 장군은 화를 내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5-7

5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6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7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은 군대 장관이자 다윗의 친족이었습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거의 꾸짖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 합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기뻐하실뻔 했습니다”라며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 말합니다.

친족이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만약 그냥 부하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마음이 찢렸는지 곧바로 성문으로 향합니다.

사무엘하 19:8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고대사회에서 성문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는 역할도 있지만, 공적인 모임과 재판, 나라의 행사등을 담당하는 주요 무대였습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사들을 격려하고 승전 축하식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8절에 ‘앉다’라는 이야기는 ‘통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다는 의미도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 피난길에 올랐지만 다시 왕국의 회복을 위하여 경영과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죠. 이에 백성들이 다윗 앞으로 나아오고, 반역자들은 모두 도망갑니다. 그동안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유다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 ‘왜 다윗왕을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빨리 모시지 않느냐’면서 스스로 질책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지난날에 압살롬을 지지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다 장로들로 하여금 왕을 다시 모셔오자 말하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데에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과거 압살롬의 반역을 주도했던 유다지파의 죄를 용서하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요압대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이는 두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다윗이 볼 때 요압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왕이 죽이지 말라 신신당부했던 압살롬을 죽였으며,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했을 때 맹렬하게 비난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세웠던 또 다른 이유는 압살롬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장관으로 세워 압살롬을 추종했던 세력들을 품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요압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따랐고 반란군을 저지한 공헌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를 몰아내고 적장을 군대장관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지 20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고, 다윗은 요단 강 동쪽 기슭에 있는 ‘길갈’로 가게 됩니다. 이 길에서 총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번째는 다윗을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곧바로 시므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배려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관대하게 대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은 베냐민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났던 사람은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은 마치 누군가를 잃은 듯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머릿도 빗지 않고 수영도 다듬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인 압살롬의 주변에서 다윗 왕을 위해 애도의 표시를 나타낸 것은 오직 다윗 왕만 섬기겠다는 므비보셋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다윗 왕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과 다윗이 베푼 은혜에 보답하는 진실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도망할 때 시바의 말을 기억하며 므비보셋에게 왜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냐며 묻습니다. 이제 므비보셋은 말합니다.

“저는 다리가 성치 못해 나귀를 타고 왕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나귀에게 안장을 얹으라 했지만, 종이 나를 속이고 오히려 왕께 모함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알겠다하며 시바의 재산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시바의 재산은 다 누구의 것이었나요? 므비보셋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므비보셋에 대한 오해를 풀었음에도 절반만 가지라 말하는 것이죠. 다 주어야 하는데 반만 준 것은 므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했습니다. 사실 이는 다윗이 어느 누구에게도 보복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통치 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공평한 처사에 므비보셋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무엘하 19장 30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므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납니다. 므비보셋은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므비보셋은 재물보다 다윗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하였습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재산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므비보셋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부요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유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래입니다. 바르실래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사람으로 여든 살이었으며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물질적인 필요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르실래도 함께 왕궁을 갈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래는 자신이 나이가 먹었고 죽은 후에 이곳에 묻히고 싶다 이야기 합니다. 그제 다윗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싶다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종이 있으니 데려가 주셔서 잘 대해 달라 말합니다. 부자들은 흔히 교만한 마음에 빠지기 쉬운데 바르실래는 달랐습니다. 왕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앞에 겸손과 진실함을 보여줬습니다. 바르실래의 제안에 다윗은 허락하고 바르실래의 종과 함께 요단 강을 건너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귀환하는 길에 시므이와 므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래를 만났던 것은 굴러간다는 뜻의 길갈처럼 다윗의 수치가 멀리 굴러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다윗은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간의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왕궁으로 귀환 하는 일을 왜 유다 지파에게만 시켰냐며 따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유다 지파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지파는 사사 시대부터 주도권을 장악해 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대해 항상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출신 지파로 은근히 자기 지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지파나 유다 지파나 다들 왕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파간의 싸움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사무엘하 20장>

지파간의 갈등이 일어난 사이 불량배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의 집안 베냐민 사람인 세바였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며 백성들의 관심을 끌어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하반절 ~2절

1b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2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함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돌아왔는데 이러한 반역자가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지파간의 갈등은 사울의 집안 사람 세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바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윗으로부터 독립하여 새 나라를 세우자! 토지나 백성들이 다윗의 간섭을 받으면 안된다! 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바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오자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궁들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왕궁을 지키게 했지만 압살롬에게 처참하게 당했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둡니다. 그리고 먹을 것만 주고 죽는 날까지 가둬 평생 생과부로 지내게 합니다. 후궁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다윗은 이러한 일을 벌였을까요? 다윗은 정말 후궁들을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궁에 남겨두었으면 안됐습니다. 죽든 살든 같이 떠났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후궁들은 궁궐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후궁들을 별실에 가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에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들을 성밖으로 쫓아 낼 수도 있었지만 이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단하고, 후궁들을 죽이거나 내어 쫓는 가혹한 형벌은 삼가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자 했던 두 번째 일은 마음에 계속 걸렸던 세바를 추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군대장관 아마사를 부릅니다. 삼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모아 놓고 있으라 말하죠. 그런데 아마사는 지도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되었는지 군대를 소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급히 아비새를 부릅니다. 이전에 압살롬의 반역은 압살롬 개인의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세바의 반역은 오래 묵은 지파간의 간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초기에 잡지 않는다면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아비새가 군대를 조직하여 세바를 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압이 슬적 끼어듭니다. 이들이 기브온에 도착하자 그제야 아마사가 등장해요. 아비새의 군대에 끼어든 요압이 다시 등장합니다. 요압은 아마사가 다가오자 칼을 일부러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20:9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요압이 아마사는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형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려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한 사람을 만날 때 서로 포옹하면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눈 것이 관례였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입을 맞추려 할 때 수염이 방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염을 옆으로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수염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의 이런 행동은 아마사를 죽이기 위한 가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요압은 칼을 일부러 떨어뜨려 아마사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마사는 요압이 품고 있던 칼을 의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요압은 품속에 있던 칼을 꺼내어 아마사를 찌릅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창자가 쏟아지며 죽음을 맞이게 됩니다. 요압은 사무엘하 19장에서 적장이었지만 자신을 몰아내고 군대장관이 된 아마사를 언젠간 죽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죠. 요압은 정치적인 인물을 죽이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브넬, 우리아, 압살롬, 아마사 이 네 사람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거침없이 살인하면서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고 싶은 야욕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분노를 사게 되고 요압을 제거하라는 다윗의 유언에 따라 솔로몬에 이르러 요압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세바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벨 성까지 도망합니다. 요압이 이곳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요압은 아벨 성의 성벽을 헐고 들어가서 세바를 치고자 토성을 쌓습니다. 이때 아벨 성 안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거래를 요청하죠.
먼저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사무엘하 20:18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은 지명이름인데요 이곳에는 성경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율법학자를 달리 말하면 랍비였습니다. 랍비에게 찾아가 자문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랍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랍비, 즉 성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게 상기시킵니다. 아벨의 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랍비들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0:19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데도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와 기업(성)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인은 아벨 성을 ‘하나님의 기업’이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아벨의 성이 하나님이 소유이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거주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여인은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제거하는데 거침이 없는 요압을 지혜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지혜로운 말에 요압은 동의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바만 찾아서 돌려주면 즉시 퇴각하겠다’ 약속합니다. 여인은 즉시 아무것도 알지못하는 아벨 성 주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립니다. 모든 주민의 동의를 얻고 성안에 숨어 있던 세바를 찾아내어 그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흐름을 잘 파악하고 실행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벨 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후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한 성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비참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점차 예수 그리스도로 지혜롭게 만들어지고 빚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삶으로 건설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다음 강의 안내>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하 7강으로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강의 들으시기 전 말씀을 읽어보시고 오시면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강의 자료실에서 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